



故 김세진 열사의 마지막 편지

아버지, 어머니.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시시오.

이제 저는 정말 저의 본심을 적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모님께 대했던 태도는 저의 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께서 행하실 반대와 방해가 두려워 일부러 피하고, 괜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와 저는 인간과 세계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눈앞에서 개패듯이 끌려가는 선배와 동료들 바라보며 저는 우리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고민으로 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땅의 가난의 원흉은, 뼈아픈 분단의 창출자는, 압살되는 자유의 원인은 바로 이 땅을 억압하고 자신의 대소 군사기치화, 신식민지화시킨 미 제국주의이며, 그 대리통치 세력인 군사 fascio라는 것을. 저의 대학 생활은 인간의 해방과 민중의 해방, 그리고 민족의 해방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의 과정이었으며, 그것의 쟁취를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광주에서의 2,000명의 학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군사지휘권을 가진 미국이 병력 이동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fascio는 결코 공수부대를 투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의 '개헌공방'은 또 무엇입니까? 민중의 혁명적 운동을 개량화시키고, 국민을 허수아비로 기만, 우롱한 채 미제의 지원 아래 진정한 민중의 권력이 아니라 예속 대리 통치 세력으로서의 보수대연합을 획책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신민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아버지, 어머니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중은 바로 자신의 권력을 원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권력을 쟁취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합법칙성이고, 인간 존재의 합목적성입니다.

저의 행위는 한 순간의 영웅심이나, 학생회장이라는 것 때문에 억지로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학 들어와서 읽은 수백권의 책과 객관적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고뇌하며 오랜 시간 고민하여 얻은 결론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믿어주시시오.

이 글을 받을 때쯤이면 이미 알게 되실 일을 준비하기 위해 무척 피곤한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돌이켜보면 아주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게 보낸 3년 2개월여의 대학생활이지만, 저는 저의 기득권이 포기되고 구속이 되더라도 조금도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교도소 안에서도 고민하고, 나와서도 변혁 해방운동에 이 몸을 바칠 것입니다.

충격이 크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주 여유있는 마음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하면서도 아주 열심히 싸울 것이고 성실히 고민할 것입니다. 경찰에게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쪽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해주세요. (그전에는 계속 집에서 학교를 다닌 것으로 해주세요.)

수면의 부족과 시간의 부족으로 저의 생각을 차분히 정리해서 글로 적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해방된 주체로서 스스로 선택한 길이고, 이번 일은 저 스스로가 주동적으로 만든 일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치소로 이송되면 다시 편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면회가 가능하겠지요.)

이해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해방된 조국의 땅에서 자랑스러운 아들임을 가슴 뿌듯하게 느낄 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투쟁 속에서 그 날을 앞당길 것입니다.

1986. 4. 26. 세진 올림

KSCF 선배회 8월 월례 예배

예배 이끄미: 류순권 간사(KSCF)

반 주: 박세론 간사(EYCK)

장 소: 기독교회관 701호

준비 및 진행: 류순권 역사자료실 간사

침묵 . . . + . . . + . . . + . . . + . . .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 . . + . . . + . . . + . . . 다 같이

류형선 글·곡

이 말씀 따 - 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 - 게 하 시고

이 말씀 따 - 라 사는 동안 주님 나 라이루소 서 -

출처: 1997년 KSCF 노래모음집 예수 노래와 다시 살아

추모의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같이

이끄미: 기독교학생운동을 위해 헌신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추모하실 분들은

2019년 8월 4일 소천하신 김용준 선생님, 2016년 8월 15일 소천하신 신인현 선배님,
2006년 8월 17일 소천하신 강원룡 목사님, 2016년 8월 18일 소천하신 박형규 목사님이
십니다. 에큐메니칼 기독교학생운동을 위해 몸바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반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영 광 송 ...+...+...+...+... 벗이여 해방이 온다 ...+...+...+...+... 다 같 이

이성지 글.곡



그-날은 오-리-라 자유-의 녀-으로살아
그-날은 오-리-라 해방으로 물결춤추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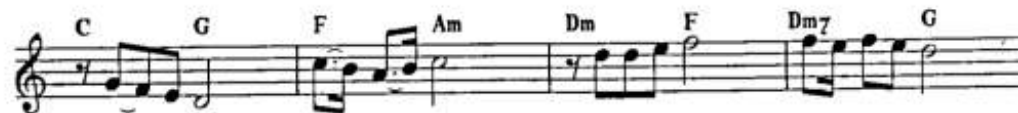
벗-이여 고이가소서 그대뒤를 따-리니
벗-이여 고이가소서 투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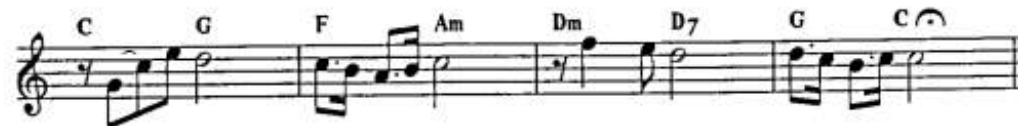
함께하리니 그대타는불길로 그대노여움으로



반역의어두움뒤-집-어 새날새-날을여-는구나



그-날은 오-리-라 가자이제 생명을걸고



벗-이여 새날이온다 벗이여 해방이온다

오늘의 기도 ...+...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를 위한 성문밖 교회 교우의 기도 ...+... 말은 이

경영의 어려움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일방적인 정리해고로

긴시간 투쟁에 내몰린 이들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어떤 이는 육아 휴직 중에 또 어떤 이는 정년 퇴직을 앞두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고 복직을 요청하는 긴 시간 속에

주명건 회장이 예배하는 교회를 찾아갔던 이들은 교회에서 쫓겨났을 뿐 아니라

예배방해죄로 고소까지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20년, 30년 일한 일터에서 쫓겨나고 고소 고발까지 당한 이들의 억울한 마음을 살피 주옵소서.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예수님은 말씀 하십니다.
 예배보다 앞선 것이 화해입니다.
 이웃과 원수가 돼 소통하지 못하는 이가 어찌 하나님과 소통하겠습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증하다 여기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이를 중재하지 않고 심지어 고소 고발까지 했다니
 이 땅에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미안하고 참으로 미안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가 이제 지나가고
 호텔의 상황도 거의 코로나 전 90프로 가까이 회복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기 좋은 때입니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부당해고가 철회되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땅에서 건강한 노동을 꿈꾸는 이들의 소망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날들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룻기 1장 14~18절 **이 끔 이**
 그들은 다시 소리내어 울었다. 그리고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껴안고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자기 겨례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나오미가 다시 타 일렀다. “보아라, 네 동서는 제 겨례와 제 신에게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저에게 어머니를 버려두고 혼자 돌아가라고 너무 성화하지 마십시오.” 하며 룻이 말했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겠으며,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겨례가 제 겨례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어머님이 눈 감으시는 곳에서 저도 눈을 감고 어머님 곁에 같이 묻히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죽음밖에는 아무도 저를 어머님에게서 떼어내지 못합니다.” 이토록 끝내 따라 나서겠다고 버티자 나오미는 더 할 말이 없었다.

하늘 뜻 나눔 “세계기독교학생회총연맹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독교학생운동 보고” **박병철 목사**

봉헌감사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같 이

이꿈이 :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습니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뻐 여기시어 받아 주소서.

(한국 카톨릭 기도서 중에서)

다같이 : 아멘

소 식 . . . + . . . + . . . + . . . + . . . 선 배 회 · 학 생 · 연 맹 . . . + . . . + . . . + . . . + . . . 말 은 이

감사의 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같 이

이꿈이 : 오, 주 하나님,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과 함께
세계기독교학생총연맹 WSCF,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KSCF의 학생기독교운동과
이 땅,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여 주소서.

다같이 : 아멘

박형규 작사
김순세 작곡

장엄하게 *mf*

들 는 가 그 - 대 는 님 의 - 발 자 옥
갈 릴 리 고 - 요 한 새 벽 - 의 향 기
두 사람 의 속 - 삭 임 움 트 - 는 사 랑

dim. *mf*

내 - 일 을 걸 어가 며 따 르 - 라 신 다 오 늘
생 - 명 이 스며 드는 부 활 - 의 아 침 건 설
손 에 손 을 잡 고가 면 인 류 - 는 하 나 장 벽

cresc. *f*

은 - 어 둡 - 고 삭 막 - 한 황 야 그 속
의 - 메 아 - 리 혁 명 - 의 불 길 그 속
을 - 헐 어 - 라 문 을 - 열 어 라 하 나

dim. *mf*

에 도 착 한 님 의 현 존 - 은 있 다
에 도 힘 센 님 의 정 의 - 는 있 다 우 리
되 는 그 마음 에 통 일 - 은 있 다

는 - 기 독 학 생 진 리 - 의 현 존 내 일

을 - 창 조 하는 오 늘 - 의 - 일 - 궂 자

유 를 책 임 지 고 회 망 - 에 산 - 다

2023년 6월 회계보고

봉헌 : 10만원 (KSCF 선배회 분담금으로 입금)

지출 : ① 박세론 간사님 반주 사례비 5만원 ② 장소 대여비 5만원(NCCK 후원금)

누계 : 105만 2천 700원 | 90만 4천원 (2022년 12월 ~ 2023년 6월) | 잔고 14만 8천 700원

